

1교시

국 어

출제위원 :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15 지방7 변형]

- ①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 ②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③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 ④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가여워서 못 보겠다

02.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지방9 변형]

- ① 그는 작곡 활동과 콘서트를 열었다.
→ 그는 작곡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
- ② 그는 망나니로 불려졌다.
→ 그는 망나니로 불렸다.
- ③ 그는 보기 드문 명창의 수제자이다.
→ 그는 보기가 드문 명창의 수제자이다.
- ④ 나는 오늘 아침 꽃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꽃에 물을 주었다.

0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5 지방9 변형]

- ① 한번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가 어렵다.
- ②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과 다르게 빨리 피곤해진다.
- ③ 백화점에서는 봄을 맞아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다.
-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04.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5 국가7 변형]

- ① 무언가 생각을 하는지 그의 굳게 닫혀진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 ② 십 년 동안 쌓여진 그 경험이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③ 소비자가 리콜을 요구하여 출고된 제품들이 모두 거둬들여졌다.
- ④ 폭설로 인해 끊겨진 도로가 드디어 복구되었군요.

05. 어법에 맞는 문장은?

[15 지방7 변형]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② 이번 주말까지 비가 100mm 더 올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 ③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 ④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 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06.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5 지방7 변형]

- ① 그녀의 가슴에는 그에 대한 미움이 가득히 차 있었다.
- ② 할아버지는 그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다.
- ③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 ④ 그는 사람이 되게 좋아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다.

07.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15 지방9 변형]

-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② 할아버지의 연세(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④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08. 다음 중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15 지방7 변형]

- ①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② 사용 후 반듯이 물을 내려 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③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화장실을 깨끗히 사용합시다.
- ④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 →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09.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7 변형]

- ①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한 ‘ㄱ, ㄴ, ㄷ, ㄱ, ㅇ’이다.
-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자 ‘ㄱ, ㄴ, ㄷ, ㄱ, ㄴ, ㄷ’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성의 기본자는 ‘天, 地, 人’을 상형한 ‘·, ㅡ, ㅣ’이다.
- ④ 중성 11자에는 초출자 ‘ㅏ, ㅑ, ㅓ, ㅕ’도 포함된다.

10.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15 지방9 변형]

- ① 나는 그 일을 시덥지 않게 생각한다.
- ② 그에게는 세 살배기 딸이 있다.
- ③ 밖에 있던 그가 급세 뛰어왔다.
- ④ 건물이 부서진 지 오래되었다.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15 지방9 변형]

- ① 그는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 다녔다.
-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들은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2교시

국 어

출제위원 :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7 지방9 변형]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별들의 잉잉 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02.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6 지방9 변형]

- ① 저 골목길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② 책상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④ 예산에 관한 한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편성해라.

03.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가 포함된 것은? [16 지방7 변형]

- 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견문을 **넓혔다**.
② 청년이 여자의 어깨를 **밀쳤다**.
③ 이 말에 그만 아버지의 율화가 **치솟았다**.
④ 나는 문틈 사이에 눈을 대고 바깥을 **엿보았다**.

04.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지방9 변형]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05. “승철아, 내가 너희 부모님께 선물을 가져다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17 지방9 변형]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객체+], [상대-]
② [주체+], [객체-], [상대+]
③ [주체-], [객체+], [상대+]
④ [주체+], [객체-], [상대-]

06.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6 기상9 변형]

- ① 윗, 꺾, 흙 ② 윈, 것, 옷
③ 샘, 낮, 네 ④ 길, 베, 단

07. 다음 중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

[14 국회8 변형]

- ① 큰일은 다 치뤘으니 이제 당분간 **홀가분**하게 쉬십시오.
②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③ 살을 예는 추위에 **쓰레기**를 주으면서 등산을 했다.
④ 지난주에는 **활짝** 갠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우레가 쳤다.

08.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시로만 이루어진 것은? [13 서울7 변형]

<보 기>

어근과 어근의 형식적 결합 방식에 따라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결합 방식이란 어근과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 즉 통사적 구성과 같고 다름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합성어의 각 구성 성분들이 가지는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정상적인 배열 방식에서 어긋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 ① 새해, 건널목, 힘들다, 군세다
② 가로마다, 용쓰다, 그러모으다
③ 맛나다, 기차다, 게을러빠지다, 열쇠
④ 접칼, 오르내리다, 부슬비, 굶주리다

09.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5 서울7 변형]

- ① 사랑은 하기가 쉽지 않다.
②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
③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까지 공부하였다.
④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12 국회9 변형]

- ①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이 된다.
② 시험은 잠시 후 실시되는바 모두 자리에 앉을 것.
③ 김 교수는 추운 날씨에 강물에 들어가 보았다.
④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일년 육개월이 지났다.

11.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17 기상9 변형]

- ① 공부를V조금V더V열심히V할걸.
② 선생님이V떠난V지도V오래되었다.
③ 키가V클수록V농구를V잘한다는V말은V거짓이다.
④ 나는V내일V모레V엄마를V도와V요리를V할거야.

12.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 [16 서울7 변형]

- ① 너는 나에게 마치 보석과도 같다. → 두 자리 서술어
② 나 옛저녁에 밤새 놀았더니 녹초가 됐어. → 두 자리 서술어
③ 철수가 하는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 → 세 자리 서술어
④ 영희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돈을 넣었어. → 세 자리 서술어

3교시

국 어

출제위원 :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보기>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것은? [14 경찰2차 변형]

<보 기>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① 낙원(樂園), 실낙원(失樂園)
- ② 내일(來日), 왕래(往來)
- ③ 노인(老人), 상로인(上老人)
- ④ 누각(樓閣), 광한루(廣寒樓)

02.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 서울7 변형]

국어의 높임법에는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두 가지가 있다. 간접높임이란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① 과장님은 외출 중이십니다.
- ② 그 분께는 따님이 계십니다.
- ③ 어르신,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잡수세요.
- ④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14 경찰1차 변형]

- ① 대관령 Daegwallyeong ② 세종로 Sejong-ro
- ③ 셋별 saetbbyeol ④ 집현전 Jiphyeonjeon

04.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서울7 변형]

<보 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②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들’의 ‘들’, ‘주신다’의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③ ‘선생님께서’의 ‘께서’, ‘숙제들’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④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들’의 ‘숙제’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05.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 ㉡과 유사한 것은? [16 기상9 변형]

<보 기>

- 민수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다.
-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를 보아라.

- ① 철수는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 ② 고향으로 가는 길이 수월했다.
그 문제는 풀어낼 길이 없다.
- ③ 지게도 용도에 따라서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 자네가 다리가 되어 주게나.
- ④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이번 일은 손이 부족하여 힘이 든다.

06.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14 서울9 변형]

훗일, 바닷가, 뒷일, 전셋집

-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②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④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07.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4 서울9 변형]

- ① 파열음 표기에는 거센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쓴다.
-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08.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15 서울9 변형]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화이팅
- ② 리더십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③ 쇼파 - 썩크대 - 바디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 ④ 소파 - 소시지 - 리더십 - 보디로션 - 파이팅

09.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16 서울9 변형]

- ① 꼬나풀 - 새벽녘 - 삶쟁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닦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태지
- ④ 불우물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10. 표준 언어 예절에 알맞은 표현은? [14 국가7 변형]

- ① 자기의 본관을 소개할 때 “저는 ○○[본관] ○씨입니다.”라고 한다.
- ②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 씨의 부인입니다.”라고 한다.
- ③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20대의 연예인을 소개할 때 “○○○ 씨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한다.
- ④ 과장이 부장에게 새로 입사한 사원을 소개할 때 “부장님, 여기는 새로 입사한 김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 여기는 우리 부서 김영희 부장이십니다.”라고 직원을 부장에게 먼저 소개한다.

1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서울7 변형]

- ① 조기 한 두름 ② 오징어 한 축
- ③ 고등어 한 손 ④ 배추 한 싹

12.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3 지방7 변형]

- ① 집밖에V나가서V놀지V않을래?
- ② 길동이는V잘난체V하는V것도V밟지가V않아.
- ③ 음식은V각자V먹을만큼만V접시에V담아V가세요.
- ④ 방향은V이미V정해진바V우리는V그에V따를 뿐이다.

13.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가7 변형]

너가 학생이라면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같지만 품사는 다르다.
- ② ‘한발’은 ‘한V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③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어떤 사람’의 ‘어떤’을 들 수 있다.

4교시

국 어

출제위원 :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지방7 변형]

백운거사(白雲居士)는 선생의 자호이니, 그 이름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자호하게 된 취지는 선생의 「백운어록(白雲語錄)」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 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陶淵明)의 무리이리라.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의 기록이다. 거사는 취하면 시를 읊으며 스스로 전(傳)을 짓고 스스로 찬(贊)을 지었다.

- 이규보, 〈백운거사전〉 중에서 -

- ① 渾然一體(혼연일체)하여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安貧樂道(안빈낙도)하며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物我一體(물아일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立身揚名(입신양명)을 바탕으로 한 백운거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5 지방9 변형]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양상들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라) 그러나 모든 생산 체계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 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 ① (다) - (라) - (가) - (나)
- ② (다) - (라) - (나) - (가)
- ③ (가) - (다) - (라) - (나)
- ④ (가) - (나) - (다) - (라)

03.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지방9 변형]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가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략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주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주몽’이 천신의 아들인 아버지와 수신의 딸인 어머니의 결합으로 탄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 부모의 중매 없이 다른 사람과 사통하여 ‘주몽’을 임신한 ‘유화’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주몽’의 비범함과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계락을 짜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04.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지방9 변형]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 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 박지원, <양반전> -

- ① 양반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군수는 가난한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 ③ 관찰사는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5.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5 지방9 변형]

이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량하여 남창에 비치고, 궁중에 외기러기 응운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가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뻑 갈고 청향모 무심필을 듬뿍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탄식하면서 맥맥이 앓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리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 ② 가위로 찢둑찢둑 옷 마르노라 /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 ③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④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 짙은데 /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06.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지방7 변형]

‘화개 장터’의 넷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땅 구레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골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추인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 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 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 리를 끼고 앉은 ‘화개 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 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진민들의 터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 등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아장수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본 등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 등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치고는 꽤 은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 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어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농수버들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 나오는 그 한 많고 맛들어진 춘향이 판소리 육자배기 등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신파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으레 재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이 ‘화개 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림계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 김동리, <역마> 중에서 -

- ① 효정: ‘화개 장터’의 연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군.
- ② 찬호: ‘화개 장터’의 시장적 기능에 이견을 보이고 있군.
- ③ 창수: ‘화개 장터’라는 명칭의 어원을 잘 설명하고 있군.
- ④ 송희: ‘화개 장터’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잘 알 수 있군.

0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지방7 변형]

호박늪에 싸오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빨강계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그 상 우엔 새파란
싸리를 그린 눈알만한 잔(盞)이 뵈었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빠드러진
나와 동갑이었다
울파주 밖에는 장꾼들을 따라와서 엄지의 젖을 빠는 망아지도
있었다

- 백석, <주막> -

- ① 다양한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향토적 지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고향의 원초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어른의 시각에서 사건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 주고 있다.

0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지방9 변형]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월러령 깔녕 뒤둥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었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작자 미상, <심청가> 중에서 -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죽음을 통해 아버의 한을 풀고자 하는 심청의 효심이 드러나 있다.
- ④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09. 다음 <보기>에 이어지는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5 지방7 변형]

< 보 기 >

사회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 (가)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재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가 분명히 상정될 수 있을 때 그에 상응하여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그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 (나)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 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언어 분화가 쉬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었던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상민, 서얼 등)의 언어가 달랐다는 여럿의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 (다) 그렇더라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잡히다(잡히다)’ 등에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실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다) - (가) - (나)

10. 다음 글의 논리적 오류와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16 지방7 변형]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①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 ② 미확인 비행 물체(UFO)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
- ③ 지금 서른 분 가운데 열 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④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11. 다음 중 인용문과 같은 서술 시점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14 국회8 변형]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발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 -

- ①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②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 ③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④ 초봉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지금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나 해서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뽀그럭 중문 소리에 언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

12. 다음 시에 대한 감상이다. 그 감상의 관점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15 경찰1차 변형]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항일 운동에 투신한 이육사의 생애와 경험으로 볼 때 이 시는 가혹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저항 의식이 나타나고 있어.
- ②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적 상황이 ‘매운 계절의 채찍’, ‘겨울’ 등에 반영되었어. 특히,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압제가 얼마나 가혹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어.
- ③ ‘채찍’, ‘서릿발 칼날’ 등의 시어에서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또 ‘북방’에서 ‘고원’으로 이어지는 점층 구조, 수평적 한계 상황과 수직적 한계 상황 등을 통해 극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초극 의지를 형상화했어.
- ④ 매운 계절과 겨울은 대개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기에 화자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졌지. 하지만 독자로서 극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와 굳건한 의지를 닦고 싶어.

13. 다음 계획에 맞는 토의의 방식은?

[14 군무원9 변형]

1. 주제: '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보호'
2. 참가자: 사회자 1명, 전문가 2명, 청중 50명(선생님과 학생들)
3. 참가자의 역할
 - 1) 사회자: 사회자는 토의가 시종 화제에 집중되도록 통제하고 조절하며 청중의 질문 다시 조직해서 연사에게 전달한다.
 - 2) 전문가: 토의를 위한 간략한 주제 발표나 의견 제시를 할 뿐 강의나 연설은 하지 않는다.
 - 3) 청중: 질문 형식을 통해 토의에 참여하게 된다.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① 포럼 ② 패널
 ③ 원탁토의 ④ 심포지엄

14.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修辭)적 유형이 같은 것은?

[12 국가7 변형]

님의 사랑은 불보다도 뜨거워서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바다를 말리는데
 님의 손길은 너무도 차서 한도가 없습니다
 - 한용운, '님의 손길' 중에서 -

- ①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국 어 <1교시> - 정답 및 해설 -

01. [정답] ④

[음운 현상 / 음운의 변화 / 음운의 변동]

- ① [O] '짓 + 었 + 다 → 지었다'이므로 'ㅅ'이 탈락하였습니다.
- ② [O] '울 + 는 → 우는'이므로 'ㄹ'이 탈락하였습니다.
- ③ [O] '쓰 + 어서 → 써서'이므로 'ㄷ'이 탈락하였습니다.
- ④ [X] '가엎 + 어서 → 가여워서'이므로 'ㅂ'이 'ㄴ'로 대체되었습니다.

02. [정답] ③

[중의적인 문장]

- ① [O] 문장의 병렬구조에 유의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서술어 '열었다'에 호응하는 목적어가 '작곡 활동'과 '콘서트'인데, '작곡 활동'과 '열었다'는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곡 활동'에 어울리는 서술어 '하다'를 추가하여 '그는 작곡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로 고친 것은 옳습니다.
- ② [O] '불리다'는 '부르다'에 피동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입니다. 여기에 '-어지다'를 다시 붙여 만들어진 '불려졌다'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두 번 쓰인 이중 피동입니다. 따라서 '불렸다'로 고쳐야 옳습니다.
- ③ [X] 제시된 문장은 중의적인 문장으로, 명창이 보기 드물다는 것인지, 명창의 수제자가 보기 드물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장을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창이 보기 드물다는 뜻이 되게 하려면, '그는 보기 드문 명창의, 수제자이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명창의 수제자가 보기 드물다는 뜻이 되게 하려면, '그는 명창의, 보기 드문 수제자이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 ④ [O] 유정명사에는 '에게'를, 무정명사에는 '에'를 씁니다. 식물은 유정명사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사를 '에게'가 아니라 '에'로 고친 것은 옳게 고친 것입니다.

03. [정답] ①

[품사의 구별 / 품사의 분류]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형 종결 어미 '-니다' 또는 '-는다'가 붙거나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붙어 자연스러우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입니다. 또한 '-롭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롭다'가 붙은 단어는 동사가 아님을 쉽게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 ① [O] '굳다'의 어간 '굳-'에 현재형 종결 어미 '-는다'를 결합시켜 보면 '굳는다'가 되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동사입니다. 단, '굳다'가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 등 변화·진행의 의미일 때는 동사이지만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형용사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동사: 기쁨이 굳다/시멘트가 굳다, 형용사: 굳은 땅과 진 땅)
- ② [X] '다르다'의 '다르'에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결합시켜 보면 '다르자'가 되어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형용사입니다.
- ③ [X] '새롭다'의 '새롭-'에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결합시켜 보면 '새롭자'가 되어 어색하므로 형용사입니다.
- ④ [X] '아프다'의 '아프-'에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결합시켜 보면 '아프자'가 되어 어색하므로 형용사입니다.

♥ [기특+] - 동사, 형용사

동 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함께 활용을 한다. 보조 동사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본동사와 보조 동사, 동작의 대상이 주어인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변화 여부에 따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뉜다. 예 • 옥수수는 가만 두어도 잘 <u>큰다</u> . (자동사 / 규칙 동사) • 이 규칙을 <u>중시하지 않은</u>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동사 / 타동사) (보조 동사) • 나는 <u>걸어서</u> 학교까지 갔다. ('ㄷ' 불규칙 동사)
형 용 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활용할 수 있어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예 • 성격이 <u>다른</u> 사람들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기본형 '다르다'의 관형사형) • 새해에는 으레 <u>새로운</u>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본형 '새롭다'의 관형사형)

04. [정답] ③

[사동과 피동의 구분]

- ① [X] 닫혀진: '닫--+-히--+-어지--+-ㄴ'의 형태입니다. 피동접사 '-히-'에 '-어지다'가 중복되어 사용된 이중 피동입니다. → 닫힌(O)
- ② [X] 쌓여진: '쌓--+-이--+-어지--+-ㄴ'의 형태입니다. 피동접사 '-이-'에 '-어지다'가 중복되어 사용된 이중 피동입니다. → 쌓인(O)
- ③ [O] 거둬들여진: '거둬들이--+-어지--+-ㄴ'의 형태입니다. 동사 '거둬들이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 ④ [X] 끊겨진: '끊--+-기--+-어지--+-ㄴ'의 형태입니다. 피동접사 '-기-'에 '-어지다'가 중복되어 사용된 이중 피동입니다. → 끊긴(O)

05. [정답] ③

[문장 성분의 올바른 호응]

- ① [X] '복종하다'는 '~에 복종하다'의 짜임으로 쓰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라고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 ② [X] '예측되어졌다'는 과도한 피동 표현입니다. '예측된다'라고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 ③ [O] 우리말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요소 중 하나'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 ④ [X] 서술어 '두었다'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목적어 '중점을'을 추가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에 있어'는 일본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06. [정답] ②

[품사의 구별 / 품사의 분류]

'-이/히' 부사, '-게' 어미를 기억합니다.

- ① [X] '가득히'는 '가득하다'의 어간 '가득-'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입니다.
- ② [O] 형용사 '가볍다'의 어간 '가볍-'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은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 ③ [X] '없다'에 부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게'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 ④ [X] '되게'는 '되우' '되통'과 함께 복수 표준어이므로 용언의 활용 형이 아닌 부사입니다.

07. [정답] ③

[문장 부호의 쓰임]

- ① [O]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에는 소괄호를 쓰므로 3.1운동(1919)은 맞는 표기입니다.
- ② [O]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쓰는 문장 부호는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입니다.
- ③ [X]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에는 소괄호를 쓰며,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깥쪽의 괄호를 대괄호로 씁니다.
- ④ [O] 묶음표에는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가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는 중괄호를 씁니다. (㉠ 아이들이 모두 학교{예, 로, 까지} 갔어요.)

08. [정답] ③

[올바른 단어의 선택]

- ① [O] '피우다'의 의미로 '피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 입이나 코로 내보냄'의 의미로는 '피우다'만 표준어로 삼습니다.
- ② [O]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부사로 '반듯하게'라는 의미이며,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맥락에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이므로 '반드시'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 ③ [X] 용언의 어간 받침이 'ㅅ'으로 끝나는 것은, 항상 부사와 접미사 '-이'가 붙습니다. 따라서 '깨끗이'가 맞습니다.
- ④ [O]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은 '삼가다'가 맞습니다. '삼가하다'라는 말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9. [정답] ④

[훈민정음 제자 원리 / 창제의 원리]

훈민정음 기본자 아, 설, 순, 치, 후(ㄱ, ㄴ, ㄹ, ㅁ, ㅂ, ㅅ, ㅇ)와 가획자, 이체자는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 ① [O]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이고 각각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입니다.
- ② [O] 초성 17자에는 전탁자(된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③ [O] 중성의 기본자는 '·, ㅡ, ㅣ'이며, 이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한 것입니다.
- ④ [X] 중성 11자에는 초출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과 재출자 'ㅊ, ㅋ, ㆁ, ㆁ'가 포함됩니다.

♥ [기특+] - 훈민정음 제자 원리/창제의 원리

초성 17자(자음): 기본자 5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은 발음기관을 상형하였으며, 여기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 가획자 9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자 방식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 3자 'ㅇ, ㄹ, ㅁ'도 있었다.

오음 (五音)	기본자	상형	가획 자	이체자
아음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ㅋ	ㆁ
어금닛 소리		혀뿌리가 목구멍 을 막는 모양		
설음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ㄷ, ㅌ	ㄹ
혓소리		혀가 윗잇몸에 닿 은 모양		
순음 (唇音)	ㅁ	象口形(상구형) 입의 모양	ㅍ, ㅃ	
입술소 리				
치음 (齒音)	ㅂ	象齒形(상치형) 이의 모양	ㅅ, ㅆ	ㅇ
잇소리				
후음 (喉音)	ㅇ	象喉形(상후형) 목구멍의 모양	ㅎ, ㅈ	
목구멍 소리				

10. [정답] ①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

- ① [X] '시답다'는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라는 뜻으로 주로 '시답지 않다'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제시된 문장에서 '시답지 않게'는 '시답지 않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② [O] '-배기'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서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거나 '무엇이 들어 있거나 차 있는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③ [O]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④ [O]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라는 뜻으로는 '부서지다'를 씁니다. 여럿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함께 쓰일 때에는 그 중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서지다', '뺏서지다' 등은 버리고 '부서지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11. [정답] ④

[용언의 활용]

- ① [O] '허구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였으므로 '허구한'이 맞습니다. '허구한'은 '허구현'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제대로 암기합니다. '허구현'은 무조건 틀리다로 암기하든지 '허~한'으로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O]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벌리다(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가 아니라 '벌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③ [O] '서슴다'가 기본형이며, 여기에 보조동사 '-지 말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올바른 활용입니다. '서슴하다'의 활용인 '서슴치'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④ [X] '서투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였으므로 '서투른'이 올바른 활용입니다. 한편, 준말인 '서툴다'의 활용인 '서툰'도 옳은 표기입니다. 그러나 '서툰'은 틀린 표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 어 <2교시> - 정답 및 해설 -

01. [정답] ②

[국어의 9품사]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와 종결 어미(‘-다’)가 붙어 활용하거나 명령형(‘-라’), 청유형(‘-자’) 등의 종결 어미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흐드리지게’의 기본형인 ‘흐드리지다’는 ‘흐드리지는’, ‘흐드리진다’와 같이 활용할 수 없고, ‘㉡충만한’의 기본형인 ‘충만하다’ 역시 ‘충만하는’, ‘충만하다’와 같이 활용할 수 없으므로 둘 다 형용사입니다. 다만 ‘㉢없는’의 기본형인 ‘없다’는 항상 형용사이지만 ‘없는데’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한편, ‘㉣느꼈던’의 기본형인 ‘느끼다’는 ‘느끼는’, ‘느낀다’로 활용 가능하고 ‘㉤설레는’의 기본형인 ‘설레다’ 역시 ‘설레는’, ‘설레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모두 형용사로만 묶인 ②입니다.

♥ [기특+] - ‘있다/없다’의 품사 분류

‘있다/없다’의 품사분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별해야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및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있다’가 ‘존재하다’는 뜻일 경우에는 형용사로 보고,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는 뜻일 경우에는 동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없다’의 경우 형용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정답] ④

[품사의 이해]

- ① [X] ‘골목길’, ‘얼굴’, ‘이’, 총 세 개의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지시 관형사로 뒤의 체언을 수식합니다.
- ② [X] ‘책상’, ‘갯’ 두 개의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돈되다’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정돈’이라는 명사에 접사 ‘-되다’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경우에 품사가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 ③ [X] ‘친구’, ‘외’, ‘사람’으로 총 세 개의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 ④ [O]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문장은 ‘예산’, ‘한’, ‘가급적’, ‘소극적’으로 총 4개의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산’ 뒤에 조사 ‘에’가 붙었으며, ‘한’은 앞에 관형어인 ‘관한’의 수식을 받습니다. ‘가급적’은 용언 앞에 단독으로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형편이 닿는 대로’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쓰이지만 뒤에 서술격 조사가 오는 경우 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꼴로 쓰여 ‘할 수 있는 것, 또는 형편이 닿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뒤에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인 ‘이면’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므로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극적’ 역시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명사입니다.

♥ [기특+] - 접미사 ‘-적(的)’이 붙은 단어

가급적 (可及的)	[I] 「명사」 ((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꼴로 쓰여)) 할 수 있는 것, 또는 형편이 닿는 것. 예 • 가급적이면 빨리 가도록 해라./가급적이면
--------------	--

	오는 게 좋을 것 같다./예산은 가급적으로 적게 편성해라. [II] 「부사」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형편이 닿는 대로. 예 •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내도록 해라./가급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消極的)	「관형사·명사」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또는 그런 것. 예 • 소극적 권리/소극적 대응/소극적 공격에는 불평을 터뜨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소극적으로 활동하다/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03. [정답] ①

[파생어]

- ① [O] ‘넉하다’의 ‘-히-’는 형용사 ‘넉다’에 붙어 사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 ② [X] ‘밀쳤다’의 ‘-치-’는 동사 어간 ‘밀-’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그러나 품사를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 ③ [X] ‘치솟았다’의 ‘-치-’는 동사 앞에 붙어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나 품사를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 ④ [X] ‘엿보았다’의 ‘-엿-’은 동사 앞에 붙어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나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 [기특+] - 지배적 접미사

지배적 접미사는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접미사를 말합니다.

접미사	기능	예
-음/口	명사 파생 접미사	웃음, 믿음, 죽음 / 삶, 춤, 잡, 슬픔
-이	명사 파생 접미사	길이, 높이, 먹이, 옷걸이, 때밀이
-하다	동사 파생 접미사	생각하다, 사랑하다, 빨래하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건강하다, 순수하다, 행복하다.
-답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꽃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정답다
-이/히	부사 파생 접미사	깨끗이, 많이, 같이, 높이, 깊숙이

04. [정답] ③

[국어의 9품사]

- ① [X] ㉠ ‘저’는 1인칭 대명사가 맞지만, ㉡ ‘그쪽’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 ② [X] ㉢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 ‘저’는 해당되지만 ㉤ ‘할머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O] ㉥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 나온 ㉦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④ [X] ㉧ ‘본인’은 할머니를 가리키고 ㉨ ‘당신’은 청자를 가리킵니다.

♥ [기특+] - ‘당신’의 의미

-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예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 당신의 아내 보냄./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3」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4」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당신이 뭘데 참견이야.
 「5」 「자기03[Ⅱ]」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장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

05. [정답] ①

[높임법의 종류]

- “승철아, 내가 너희 부모님께 선물을 가져다 드렸다.”에 사용된 높임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주체 높임의 경우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는 ‘나’인데 주체 높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체-]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부모님께’라고 하여 부사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드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부모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로 표시해야 합니다.
 - 상대 높임은 문장의 종결 어미를 변화시켜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듣는 이는 ‘승철’이며, 화자는 ‘드렸다.’라는 반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06. [정답] ①

[국어의 모음 체계]

- ① [O] 국어 모음 중에서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것은 고모음입니다. 고모음에는 ‘ㅣ, ㅗ, ㅜ, ㅓ’가 있고 따라서 ‘ㅕ, ㅛ, ㅝ’가 쓰인 ‘읏, ㅞ, ㅟ’는 정답입니다.
- ② [X] ‘ㅐ, ㅑ, ㅓ, ㅕ’는 중모음입니다.
- ③ [X] ‘ㅐ, ㅓ’는 저모음이며, ‘ㅐ’는 중모음입니다.
- ④ [X] ‘ㅣ’는 고모음이고, ‘ㅐ’는 중모음이며, ‘ㅓ’는 저모음입니다.

♥ [기특+] - 모음 체계표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ㅗ	ㅜ	ㅓ
중모음	ㅐ	ㅑ	ㅓ	ㅕ
저모음	ㅐ		ㅓ	

07. [정답] ④

[주의해야 할 용언의 활용]

- ① [X] ‘치르다’는 어간이 ‘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모음 앞에서는 어간의 ‘으’가 탈락합니다.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과거 선어말 어미 ‘-었-’이 합쳐지면 ‘-’가 탈락하여 ‘치렀-’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치렀으니’라고 써야 합니다.
- ② [X] ‘빌리다’와 ‘빌다’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빌다’는 ‘빌어’, ‘비는’ 등으로 활용하며, ‘바라다, 기도하다’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빌리다’는 ‘빌려’, ‘빌리는’ 등으로 활용하며, ‘일정한 형식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흔히 ‘이 자리를 빌려~’처럼 씁니다.
- ③ [X] ‘ㅂ’ 불규칙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의 끝 ‘ㅂ’이 ‘ㄱ/ㄷ’로 바뀝니다. ‘ㅂ’ 불규칙 용언에 ‘-읍다’라는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줍다’는 ‘ㅂ’ 불규칙 용언입니다. 연결 어미 ‘-면서’가 붙어 활용될 때, ‘줍다’의 ‘ㅂ’이 ‘우’로 바뀌어 ‘주- + -우- + -면서’와 같이 활용됩니다.
- ④ [O] ‘개인’의 기본형은 ‘개다’입니다. ‘개다’의 어간 ‘개-’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개ㄴ’으로 활용됩니다. 불필요한 피동 접미사 ‘-이-’를 삽입한 형태인 ‘개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8. [정답] ④

[합성어의 유형]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일치하지 않는 순서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 ‘부사+명사’ 형태로 결합된 경우, 우리말 어순이 아닌 경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합니다. 이에 비해,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순서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명사+명사’, ‘관형어+체언’, ‘부사+부사’, ‘부사+서술어’의 형태로 결합한 경우, 조사가 생략되거나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합니다.

- ① [X] ‘새해’는 ‘관형어+체언’의 형태로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건넌목’은 ‘관형어+체언’의 형태로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힘들다’는 ‘힘(이)+들다’의 형태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군세다’는 ‘군-+(어미 생략)+세다’의 형태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X] ‘가로막다’는 ‘가로(로)+막다’의 형태로,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용쓰다’는 ‘용(을)+쓰다’의 형태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러모으다’는 ‘그르-+어+모으다’의 형태로, 연결 어미 ‘어’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X] ‘맞나다’는 ‘맞(이)+나다’의 형태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기차다’는 ‘기(가)+차다’의 형태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게을러빠지다’는 ‘게으르-+어+빠지다’의 형태로, 연결 어미 ‘어’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열쇠’는 ‘열+ㅅ+쇠’의 형태로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O] ‘접갈’은 ‘접-+(어미 생략)+갈’의 형태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오르내리다’는 ‘오르-+(어미 생략)+내리다’의 형태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부슬비’는 ‘부사+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끓주리다’는 ‘끓-+(어미 생략)+주리다’의 형태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기특+] -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순서

로 만들어진 합성어.

- ㄱ. 명사+명사 : 눈발, 눈코, 밤낮 등
 - ㄴ. 관형어+체언 : 작은형, 큰집, 새언니, 늙은이 등
 - ㄷ. 부사+부사 : 이리저리, 비틀비틀 등
 - ㄹ. 부사+서술어 : 잘하다, 가로지르다 등
 - ㅁ. 조사 생략 : 힘쓰다(힘을 쓰다), 힘들다(힘이 들다), 철들다(철이 들다) 등
 - ㅂ. 연결어미로 이어진 경우 : 알아보다, 스며들다 등
2.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일치하지 않는 순서로 만들어진 합성어.
- ㄱ. 관형사형 어미(‘-은’) 생략 : 꽃감, 뽕밥 등
 - ㄴ. 연결 어미(‘-어/아’, ‘-게’, ‘-지’, ‘-고’) 생략 : 뛰놀다, 검푸르다, 우짚다, 굶주리다, 오르내리다 등
 - ㄷ. 부사+명사 : 험뎡고개, 출렁새, 흔들바위 등
 - ㄹ. 우리말 어순이 아닌 경우 : 독서, 등산 등

09. [정답] ②

[문장의 구조 / 짜임 / 종류]

②는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안은문장입니다.

- ① [X] ‘사랑을 하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이 되었습니다. 이 명사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명사절을 안은문장입니다.
- ② [O]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면’이 쓰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입니다.
- ③ [X] ‘밤이 새다’가 부사형 전성 어미 ‘-도록’과 결합하여 부사절이 되었습니다. 이 부사절이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으므로 부사절을 안은문장입니다.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 ④ [X] ‘인간이 존귀하다’가 전체 문장의 인용절로 쓰인 안은문장입니다.

♥ [기특+] - 겹문장

1. 이어진문장(접속)

- (1)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두 개의 **홀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연결 어미 앞뒤의 문장을 서로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관계는 나열, 대조, 선택 등이다.
 - 예 • 내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 영화는 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채소도 샀다.
 - 산이 높고 물이 맑다.
 - 철수는 큰데 영화는 작다.
 - 산은 높지만 물은 흐리다.
 - 철수가 학교에 가고 영화가 집에 왔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2)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홀문장이 뒤의 홀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이다. 연결 어미 앞뒤의 문장을 서로 바꾸면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관계는 이유, 조건, 의도, 결과, 전환 등이다.
 - 예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었다.
 -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다.
 -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럽다.
 -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워질 듯하다.
 -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큰집에 들르지 않는다.

-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은 꼭 완성하겠습니다.
-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 열심히 했는데도 학점이 잘 안 나온다.

2. 안은문장(내포)

- (1) 명사절을 안은문장 : 한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으’,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사절인데, 이러한 명사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예 •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
 -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셨다.
 - 철수가 합격했음을 알려야지.
 - 황금을 보기를 똑같이 하라.
 - 강희는 영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 맛이 달기가 꿀맛 같다.
- (2) 관형절을 안은문장 : 주어+서술어로 된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절을 관형절이라 하는데, 이러한 관형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예 • 형은 동생이 한 잘못을 감싸주었습니다.
 - 철수가 먹은 사과가 가장 예쁘고 달았다.
 -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시작 되었다.
 -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 영웅이 돌아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 그가 읽은 책은 참으로 유익하다.
 - 꽃이 피는 봄이 왔다.
- (3) 부사절을 안은문장 : 절 전체가 부사어의 구실을 하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절을 부사절이라 하는데, 이러한 부사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예 •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렸구나!
- (4) 서술절을 안은문장 : 절이 서술어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서, 서술어 부분이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을 서술절이라 하는데, 이러한 서술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예 • 그는 마음이 넓다.
 - 저 사람은 아들이 화가이다.
 - 순이는 성적이 많이 올랐다.
 - 나는 코스모스가 좋다.
- (5) 인용절을 안은문장 : 남의 말을 직접이나 간접으로 인용하는 절을 인용절이라 하고, 인용절을 내포하는 문장을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예 •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 친구가 나에게 오늘 모임은 재밌었냐고 물어보았다.
 -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 우리는 그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10. [정답] ④

[띄어쓰기]

- ① [O] '지내는지'에서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붙여 쓴 것은 바른 표기입니다.
- ② [O] '실시되는바'에서 '-는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 것은 바른 표기입니다.
- ③ [O]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김V교수'처럼 띄어 쓴 것은 바른 표기입니다.
- ④ [X]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일V년', '육V개월'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은 표기입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지' 또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 [기특+] - 〈한글 맞춤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호와 자 등이 성명 앞에 오는 경우는 띄어 쓴다. 또한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 예 김양수V씨 / 김동식V박사 / 이충무공 / 기V전생
/ 김V부장님 / 충무공V이순신V장군 / 백범V김구V전생

11. [정답] ④

[띄어쓰기]

- ① [O] '-르걸'은 종결 어미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따라서 '할걸'은 붙여 써야 합니다.
- ② [O]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떠난 지'와 같이 띄어 씁니다.
- ③ [O] '-르수록'은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클수록'과 같이 붙여 써야 맞습니다.
- ④ [X] '할거야'는 '할 거야'로 띄어 써야 합니다. '거야'는 '거+이+-야'로 분석되는데, 여기서 '거'는 '것'의 구어적인 표현이고 '이다'의 '이'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쉽게 탈락되어 '거야'가 됩니다. 따라서 '할'과 '것이야'를 '할 것이야'로 띄어 쓰는 것과 같이 '할'과 '거야'도 띄어 씁니다. '내일모레'는 '내일의 다음 날'에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뜻의 부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12. [정답] ③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는 주어만 필요하다고 암기하고, 두 자리는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와 보어가 모두 필요하거나 보어가 빠지고 대신 필수부사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암기하면 빠르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 ① [O] '같다'는 '~와 같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주어(너는)'와 '부사어(보석과도)'만을 필요로 합니다.
- ② [O] '되다'는 '아니다'와 함께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주어(나)'와 '보어(녹초가)'를 필요로 합니다.
- ③ [X]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 '~와 다르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주어(철수가 하는 생각은)'와 '부사어(나와는)'만을 필요로 합니다.
- ④ [O] '넣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을 ~에 넣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주어(영희가)'와 '목적어(돈을)', '필수적 부사어(구세군 자선냄비에)'를 필요로 합니다.

♥ [기특+]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의 수를 말한다. 서술어는 용언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것, 주어와 또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 세 가지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① 한 자리 서술어

ㄱ. 다른 성분이 생략되더라도 주어 하나만으로 온전히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서술어를 말한다.

ㄴ. 자동사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예 • 우리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갔다.

• 꽃이 (활짝) 피었다.

※ 한 걸음 더 -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 자동사 :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예 어느덧 날이 새는지 창문이 뿌옇게 밝아 온다.

• 타동사 :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예 밤을 새우지 말고 일찍 자라.

② 두 자리 서술어

ㄱ.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성분이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서술어를 말한다.

ㄴ. 서술어가 타동사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철이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ㄷ.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면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다.

ㄹ. 대칭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둘이거나 주어 외에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예 • 영희와 엄마는 닮았다.('와'는 접속 조사로 쓰여 주어의 대상이 둘인 문형임)

•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주어와 부사어가 있는 문형임)

③ 세 자리 서술어

ㄱ.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말한다.

ㄴ. 세 자리 서술어에는 주다, 드리다, 바치다, 가르치다, 삼다, 넣다, 여기다, 엮다, 간주하다 등이 있다.

예 • 할아버지께서 (설에) 동생에게 인형을 주셨다.

• 나는 (지금도)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다.

국 어 <3교시> - 정답 및 해설 -

01. [정답] ③

[두음 법칙]

- ① [O] '낙원'은 '락(樂)'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낙원'으로 적습니다. '실-낙원'은 [붙임 2]의 규정에 따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실낙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O] 두음 법칙은 어두에만 적용되므로, '래(來)'가 어두에 올 경우 '내'로 표기하고 어두가 아닐 경우에는 '래'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내일, 왕래'는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 ③ [X] '노인'은 '로(老)'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인'으로 적습니다. '상-노인'은 [붙임 2]의 규정에 따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상노인'이라고 적습니다.
- ④ [O] 두음 법칙은 어두에만 적용되므로, '루(樓)'가 어두에 올 경우 '누'로 표기하고 어두가 아닐 경우에는 '루'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누각, 광한루'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02. [정답] ④

[올바른 높임 표현 / 언어 예절]

간접 높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관련된 대상 역시 높이는 표현법입니다. 선어말어미 '-시-'를 써서 나타내며, '계시다' 등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모두 직접 높임이므로 간접 높임 표현이 아닙니다.

- ① [X] '과장님'을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습니다. 직접 높임에 해당합니다.
- ② [X] '그 분'을 높이기 위해 '그 분'과 관련된 '따님'도 높이는 간접 높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있으십니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 ③ [X] '어르신'을 높이기 위해 '떡다'의 높임말인 '잡수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직접 높임에 해당합니다.
- ④ [O] '있으시다'의 주어는 '질문'이지만, 화자의 존대 의도는 청취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관련된 다른 말을 높이는 간접 높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 [기특+] -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직 접 높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주체(주어)가 되는 대상을 높인다. 선어말 어미 '-시-' 또는 특정 어휘를 통해 표현된다. 	<p>예 • 그저께는 할아버지께서 댁에 <u>계셨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께서 진지를 <u>드신다</u>. 할머니께서 <u>편찮으시다</u>.
간 접 높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개인적 소유물, 친분 관계 등 주체와 연관되어 있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으)시-'를 붙여서 표현한다. 	<p>예 • 선생님은 아들이 한 명 <u>있으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머니는 무릎이 <u>아프시다</u>.

03. [정답] ③

[로마자 표기법]

- ① [O]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발음하며, '르'는 'll'로 표기해야 하므로 'Daegwallyeong'은 바른 표기입니다.
- ② [O] '로(路)'는 '-ro'로 통일하여 표기해야 하므로, 'Sejong-ro'는 바른 표기입니다.
- ③ [X] '셋별'은 [셋뻘]로 발음하지만, 된소리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saetbyeol'이 바른 표기입니다. 또한 '뻘'은 'pp'로 표기합니다. 참고로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④ [O]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Jiphyeonjeon'은 바른 표기입니다.

04. [정답] ③

[형태소의 유형]

- ① [O] 선생님께서 '계서'는 조사, '우리들에게'의 '들'은 접미사, '주신다'의 '주'는 어간으로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 ② [O] 선생님께서 '님'은 접미사, '숙제'의 '들'은 조사, '주신다'의 '다'는 종결 어미로,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 ③ [X] 선생님께서 '계서'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숙제'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 ④ [O] 선생님께서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의 '숙제'는 모두 자립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05. [정답] ③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과 ㉡의 '배'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입니다. ㉠은 신체를 나타내는 '배'이고, ㉡은 탈 것의 '배'입니다.

- ① [X] 선지에서 '눈'은 다의어입니다. '의심하는 눈'이라고 할 때는 '((눈으로) 끌려 쓰여))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고 쓸 때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 ② [X] 선지에서 '길'은 다의어입니다. 각각 '노정'과 '방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③ [O] 선지에서 '다리'는 동음이의어입니다.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에서 '다리'는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을 의미하고 '자네가 다리가 되어 주게나'에서 '다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서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 ④ [X] 선지에서 '손'은 다의어입니다. '손이 많이 간다'에서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을 의미하며, '손이 부족하다'에서 '손'은 '일손'을 뜻합니다.

06. [정답] ④

[사이시옷의 표기]

- ① [O]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에 해당되는 예시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는 순 우리말인 '바다'와 '가'가 합쳐진 말이고, '바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며, 발음이 [바단까]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바닷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 ② [O]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에 해당되는 예시는 '전셋집'입니다. 한자어 '전세(傳貰)'와 순 우리말 '집'이 합쳐진 말이며 '전세'는 모음으로 끝났으며, 뒷말인 '집'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전셋집]과 같이 발음되므로 '전셋집'이라고 표기합니다.

- ③ [O]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에 해당되는 예시는 '뒷알'입니다. '뒷알'은 순 우리말인 '뒤'와 '알'이 합쳐진 말이고, 앞말인 '뒤'는 모음으로 끝났으며, 뒷말인 '알'의 모음 'ㅏ'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된닐]과 같이 발음되므로 '뒷알'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 ④ [X]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에 해당되는 예시는 보기예 없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넋뭉[인뭉]', '콧날[콘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07. [정답] ④

[외래어 표기법]

- ① [X]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①번 선지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참고로 외래어인 'conte', 'double', 'game', 'pierrot'와 같은 단어는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라고 적어야 합니다. '콩트', '떠블', '게임', '뻬어로'와 같이 된소리로 표기하여 틀리게 출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② [X]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씁니다.
- ③ [X]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2항에 따르면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③번 선지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O]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 따르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합니다.

08. [정답] ④

[외래어 표기법]

- ① [X]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fighting)'으로 써야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표기가 맞습니다.
- ② [X]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쉽(leadership)'으로 써야 맞습니다.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sausage)'로 써야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표기가 맞습니다.
- ③ [X] '쇼파'가 아니라 '소파(sofa)', '썩크대'가 아니라 '싱크대(sink 臺)', '바디로션'이 아니라 '보디로션(body lotion)' '스카웃'이 아니라 '스카우트(scout)'로 써야 맞습니다.
- ④ [O] 모두 바르게 표기되었습니다.

09 [정답] ③

[표준어 규정]

- ① [X] '샅쟁이'는 '살쟁이', '떨어먹다'는 '털어먹다'로 써야 맞습니다. '끄나풀', '새벽녘'은 표준어입니다.
- ② [X] '세째'는 '셋째', '애달다'는 '애달프다'로 써야 맞습니다. '뜯게질', '수평아리'는 표준어입니다. '뜯게질'은 '해지고 낚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의 솔기를 뜯는 일'을 뜻합니다.
- ③ [O] '치켜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태지'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삭월세, 설겅이, 솟대지'는 비표준어입니다.
- ④ [X] '광우리'는 '광주리', '강남콩'은 '강낭콩'으로 써야 맞습니다. '불우물', '솟양'은 표준어입니다.

♥ [기특+] - 표준어 규정

1.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의 표준어 (<표준어 규정> 제3-4항)
(1)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끄나풀	끄나불	
나팔꽃	나발꽃	
넉	녁	동넉, 들넉, 동틀 넉, 새벽넉
부억	부억	
살쟁이	샅쟁이	
칸	간	칸막이, 빈 칸, 방 한 칸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으로 쓴다.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예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X)/ 털어먹는(O) 사람이 많다.

- (2)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가을갈이	가을카리	
거시기	거시키	
분침	푼침	

2. 어원과 떨어진 형태의 표준어 (<표준어 규정> 제5항)

- (1) 어원과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강낭콩	강남콩	
고삐	고살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예 길고삐, 속고삐 참고: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 길이나 골목 사이를 뜻할 때는 '고삐' 또는 '고삐길'이 옳다.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3.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 '수-' (<표준어 규정> 제7항)

- (1) '수-'로 쓰는 것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수평	수평/수평	'장끼'도 표준어임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항소'도 표준어임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 (2) '수-'뒤에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것
(접두사 '암-'이 결합하는 경우도 이에 준함)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수강아지	숫강아지	

수개	숫개	
수강아지	숫것	
수기와	숫기와	
수닭	숫닭	
수탕나귀	숫당나귀	
수톨찌귀	숫돌찌귀	
수돼지	숫돼지	
수평아리	숫병아리	

(3) '숫-'으로 쓰는 것

표준어	비표준어	비고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10. [정답] ④

[언어 예절]

- ① [X] 자신의 본관을 소개할 때는 '○○[본관] ○가(家)'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을 어른에게 소개할 때 '씨'라는 호칭 대신 '가'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씨'는 남편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씨의 아내/집사람/안사람/처입니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 ② [X] 남편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씨의 아내 / 집사람 / 안사람 / 처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X] 텔레비전 방송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회자가 손님을 소개할 때, 시청자와 방청객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모시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씨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 ④ [O]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서로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따라서 아래 직원을 상사에게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 [기특+] -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

- 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자기와 먼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②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③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11. [정답] ④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

- '10'을 나타내는 단위의 암기 팁은 '10, 갓, 뭇, 죽'입니다. '20'을 나타내는 단위의 암기 팁은 '축, 꽤, 코, 두름, 20, 제'입니다.
- ① [O]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길으로 한 줄에 10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혹은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술 정도로 엮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 한 두름은 20마리입니다.
 - ② [O] '축'은 오징어를 세는 단위입니다. 오징어 한 축은 오징어 20마리입니다.
 - ③ [O] '손'은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입니다.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룹니다. 따라서 고등어 한 손은 고등어 2마리입니다.
 - ④ [X] '접'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는 '짚'이 아니라 '접'입니다. 한 접은 채소나 과일 100개입니다. '짚'은 바늘을 세는 단위로, 바늘 한 짚은 24개입니다.

12. [정답] ④

[띄어쓰기]

- ① [X] 선지에서 '밖에'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합니다. 한편, '밖에' 다음에 부정적 어휘가 붙어 '오직 그것뿐'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크밖에'가 '다른 수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일 경우도 붙여 씁니다.
- ② [X] '체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잘난체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잘난체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 ③ [X] '만큼'은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체언 다음에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씁니다. 선지에서 '먹을'은 기본형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크'이 붙은 형태이므로 '만큼'은 의존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먹을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대로'와 '뿐'도 이와 같은 경우로 암기해야 합니다.
- ④ [O]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나바'는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붙여 씁니다. 선지에서는 후자의 의미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 [기특+] - '바'의 띄어쓰기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V반과 같이
• 앞서 말한 V반과 같다.
2.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경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예) •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총무과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바 이를 알려 드립니다.

13. [정답] ③

[품사의 이해]

- 단어의 개수는 어절의 개수를 센 다음 조사의 개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단어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와 형태소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단어의 개수를 셀 때는 특히 서술어를 더 쪼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한다'일 경우, '한다'를 더 쪼개어 '하 / ㄴ / 다'라고 분석하지 않고 서술어 '한다'를 그대로 한 단어로 두고 단어의 개수를 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 ① [X] '너'의 품사는 대명사이고, '그'의 품사는 명사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입니다. 위 문장에서 '너'의 문장 성분은 주어이고, '그'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 ② [X] '한발'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다른 동작이나 행동보다 시간·위치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로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발'로 붙여 쓰는 것이 옳은 표기입니다.
 - ③ [O] 단어의 개수는 어절의 개수를 센 다음 조사의 개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 문장을 어절과 조사를 구분하여 쪼개어보면 '너/는/학생/이라면/그/위험한/일/에서/한발/물러나야/한다.'이고, 총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X] '위험한'은 형용사 '위험하다'의 활용형이므로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인 반면 '어떤 사람'에서 '어떤'은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할 때 쓰는 말'이라는 뜻의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둘 다 문장에서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품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 어 <4교시>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②

[고전소설]

제시문은 백운거사의 안빈낙도하는 삶을 그려낸 이규보의 전(傳)입니다. 백운거사는 끼니를 굶어도 유쾌히 지내며 항상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① [X] ‘渾然一體(혼연일체)’는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됨을 의미하며 제시문의 백운거사의 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② [O] ‘安貧樂道(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는 백운거사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X] ‘物我一體(물아일체)’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의미하며, 제시문의 백운거사의 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④ [X] ‘立身揚名(입신양명)’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백운거사의 삶은 입신양명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2. 정답 ③

[글의 전개 순서]

- ③ [O] (가)는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 뒤에는 기술 공학의 본질과 영향력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질서가 초래한 변화의 사례와 기술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다)가 (가) 뒤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라)는 (다)에서 말한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유연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로 시작하므로 (다)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의 체계가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앞의 내용을 통틀어 정리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정답 ②

[설화]

주몽신화에 대해 많은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밑줄 친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 밑줄의 의미를 잘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① [O] 밑줄 친 부분은 ‘유화’가 ‘해모수’와 사통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천신의 아들과 수신의 딸의 만남으로 고귀한 혈통을 가진 주몽이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 ② [X] 밑줄 친 부분의 바로 뒤를 보면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유화’의 몸을 쫓아가며 비춘 것은 태양의 정기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천제의 후손인 ‘주몽’을 잉태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몽’과 하늘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몽’이 하느님의 자손임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 ③ [O] 밑줄 친 부분의 바로 앞을 보면 금야 왕의 딸이었던 ‘대소’는 ‘주몽’을 견제하며,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몽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준마’를 알아보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였습니다. ‘주몽’의 비범함과 선견지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④ [O] 주몽이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몽은 하늘을 향해 자신이 하늘과 강의 신(神)의 자손(천제의 자손, 하백의 외손)임을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신과 교통한 장면입니다.

▼ [기특+] - 작품 분석

<주몽신화>

갈래: 신화

연대: 고대

주제: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

특징: ‘천제 - 해모수 - 주몽’이라는 삼대기의 구조

의의:

- ① 우리 나라 문헌 설화 중에서 어느 신화도 따를 수 없는 높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신화소(神話素)가 결합되어 있으며, 난생 설화 중 유일한 인생란(人生卵)신화이다.
- ③ 영웅의 일대기는 후대 서사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4. 정답 ④

[고전소설]

박지원의 <양반전>은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쓴 소설입니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알고 푸는 것과 그냥 푸는 것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고전 소설들을 공부할 때도 각각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은 미리 알아둡니다.

- ① [O] ‘자구책’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을 의미합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를 미루어 보아,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O] 관찰사는 군량을 축낸 양반을 파주는 것 없이 잡아들이라고 하므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X]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뜻합니다. 제시문에서 아내는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며 양반을 몰아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기특+] - 작품 분석

박지원, <양반전>

갈래: 한문소설

연대: 조선 후기

주제: 양반들의 허례허식, 비생산성,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

성격: 풍자적, 비판적

특징: ①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풍자함

② 평민 부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

5. 정답 ②

[고전 소설]

제시문의 송이는 독수궁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에 미루어볼 때 임과의 이별,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외로움을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는 ‘임과 사별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O] 허난설헌의 <빈녀음(貧女吟)>은 '가난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여자의 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X] <황조가>는 다정한 황조와 대비되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읊고 있으므로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말하는 제시문과 가장 유사한 시적 상황입니다.
- ④ [X] 정지상의 <송인>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 [기특+] - 작품 분석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갈래: 고전소설

연대: 조선 후기

주제: 세속적 욕심이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성격: 비판적, 사실적, 진취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① 고소설의 비현실성과 우연성을 탈피하여 인과적이고 필연적 사건 전개를 보임
② 매관매직과 같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던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
③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채봉을 통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줌

6. 정답 ④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 ① [X] 화개 장터의 연혁(변천하여 온 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 ② [X] 두 번째 문단에서 화개 장터의 시장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X] 화개 장터의 명칭과 관련된 정보는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 ④ [O] 제시문은 화개 장터의 지리적 위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화개 장터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화개 장터가 지닌 다양한 특징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7. 정답 ④

[주요 현대시 작품의 이해]

- ① [O] '빨강계 질들은 팔모알상'과 '새파란 싸리'의 색채 대비를 통하여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 ② [O] 장고기(장조림의 북한어), 율파주(율바자의 평안 방언, 율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바자) 등 지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③ [O] 이 시는 주막의 음식, 주막의 부엌 모습, 주막 아들 아이, 율타리 밖 모습 등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 ④ [X] 이 시는 화자인 어린아이의 시각에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어른의 시각과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 [기특+] - 작품 분석

백석, <주막>

연대: 1930년대

주제: 어린 시절의 추억 회상

성격: 묘사적, 향토적

- 특징: ① 향토적 지역어의 활용
② 어린아이 화자의 시각에서 서술
③ 색채 대비를 통한 풍경 묘사

어휘: * 붕어곰 : 붕어를 오래 곤 국. 또는 오래 곤 붕어.

* 질들은 : 오래 사용하여 반들반들한

* 팔모알 상 : 테두리가 팔각으로 만들어진 개다리소반

* 장고기 : 잔고기. 농다리와 비슷하다

* 율파주 : 대. 수수깡. 싸리. 갈대 등을 엮어 놓은 율타리

* 엄지 : 짐승의 엄지

8. 정답 ④

[판소리]

- ① [O] 서술자는 심청의 엷드린 모양을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하며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② [O]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와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등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드러내므로 적절합니다.
- ③ [O] 심청은 자신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서럽지 아니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뜨이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X] 제시문에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혼자서 비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을 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특+ - 작품 분석

작자 미상, <심청가>

갈래: 판소리

연대: 조선 후기

주제 : 심청의 효심

성격: 교훈적, 우연적

- 특징 : ① 작자 연대 미상의 판소리 사설
②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구 반영
③ 유교의 효 사상과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바탕으로 함

9. [정답] ③

[글의 전개 순서]

- 글의 논리적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각 문장 및 문단의 내용과 역할을 파악하고 접속어와 지시사를 힌트 삼아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해야 합니다.
- ③ [O] <보기>에서 사회계층의 정의를 제시한 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 분화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보기> 다음에는 (나)의 연결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후 한국 사회의 경우로 한정하여 한국 사회는 계층 경계가 확연하지 않아 언어 분화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가 이어진 후 '그렇더라도' 계층에 따른 언어 분화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다)의 내용이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보기>-(나)-(가)-(다)의 연결이 가장 적절합니다.

10. [정답] ④

[오류의 유형]

제시된 글은 순환 논증의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는 논증의 결론을 전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증명되어야 하는 결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제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다시 결론을 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① [X]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A지역과 B지역의 사례만을 가지고 올해 생산된 모든 사과에 대해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 ② [X]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 예가 제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참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 ③ [X]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른 명이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찬성과 반대 이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④ [O]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이다'는 증명되어야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전제 '왜냐하면 성격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 [기특+] - 오류의 유형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불충분한 통계 자료, 제한된 정보, 대표성을 결여한 자료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이다.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 형편없는 애구나.

(2) 순환 논증의 오류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참인 근거는 그 전제에 근거하고, 그 전제가 참인 근거는 결론에 의존하여 순환적으로 논증하게 되는 오류이다.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 되풀이하는 경우)

예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논지를 따르는 대중의 규모에 비추어 참을 주장하거나 대중의 편견 등을 자극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이다.

예 국민의 67%가 사형 제도에 찬성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

(4) 흑백 사고의 오류

논의되는 집합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예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5) 원인이 되는 사실과 결과가 되는 사실을 혼동한 오류

예 19세기에 영국의 한 정치가는 착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모두 적어도 한두 마리의 젖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신 젖소를 못 가진 농부들은 게으르고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게 보통이었다. 그래서 이 정치가는 게으른 농부들을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젖소를 한 마리씩 주자고 제안하였다.

(6) 의도 확대의 오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의도가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예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모르니? 아니, 정말 그렇게도 죽고 싶어?

(7) 범주의 오류

범위를 혼동한 오류이다.

예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8) 인신공격의 오류

과거의 행적 등을 빌미로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오류이다.

예 그 사람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므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믿을 수 없다.

(9)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증명할 수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오류이다.

예 • 우주에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어떤 마음도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1. [정답] ②

[소설의 시점]

시점을 찾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지, 또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지를 파악합니다. '나'가 없다면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생각, 느낌까지 다 서술하고 있는지, 외적 상황만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위 작품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의 서술입니다. 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건과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① [X] 주요점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딸 옥희가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② [O] 김동인의 <감자>로, 복녀의 죽음 이후 벌어지는 일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이유는 인물의 내면 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③ [X] 김유정의 <동백꽃>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④ [X] 채만식의 <탁류>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는 '초봉이'의 행동과 내면을 모두 들여다보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 [기특+] -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중 화자인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로서,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다. 독자와 작품 속 주인공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독자가 작품 속 주인공의 내밀한 생각을 파악하기 쉽다. 독자는 주인공을 관심의 중심에 놓고 보며, 독자의 관심을 일정한 곳으로만 몰고 가기 쉽다. <p>예 나는 다시 닭을 잡아가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p>
1인칭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속 '나'가 자신이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서술하는 시점이다. <p>예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p>

	<p>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p>
전지적 작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태도와 심리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는 시점이다. •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을 논평하기도 한다. • 고전 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p>예) 초봉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지금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 가는가 해서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삐걱덕 중문 소리에 연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 - 채만식, <탁류></p>
작가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바를 그대로 보여주고 묘사하는 시점이다. • 서술자가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p>예)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p>

12. [정답] ③

[문학 이해의 방법과 비평의 종류]

문학 이해의 방법을 묻는 문제는 선지에서 '작가', '시대', '독자'와 같은 키워드를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과 그 외 '작가', '시대', '독자' 등에 주목하는 외재적 관점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 ① [O] 시인의 삶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작품 외에서 작품 해석의 근거를 찾는 외재적 관점에 속합니다.
- ② [O] 시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 외에서 작품 해석의 근거를 찾는 외재적 관점에 속합니다.
- ③ [X] 시어의 의미와 사상의 전개 방식 등 작품 안에서 작품 해석의 근거를 찾는 관점은 내재적 관점으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 ④ [O]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효용론적 관점으로 작품 외에서 작품 해석의 근거를 찾는 외재적 관점에 속합니다.

♥ [기특+] - 문학 이해의 방법

내재적 관점	<p>구조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p>	<p>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작품 자체만을 고찰하는 관점으로, 작품의 독자적 구조와 체계에 주목한다. 작품 내의 질서와 미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관점을 말한다. 작품 속 언어의 함축적 의미나 표현법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p> <p>예)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유리창은 이승과 저승의 운명적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p>
--------	---------------------------	---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p>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전기(傳記), 심리 상태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p> <p>예)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이 승려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님'은 '부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p>
	반영론적 관점	<p>작품을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품과 실제 현실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에 반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p> <p>예)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는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p>
	효용론적 관점	<p>작품을 독자에게 미적 쾌감이나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독자가 얻는 즐거움과 교훈 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p> <p>예) 박목월의 <가정>을 읽고 독자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경우</p>

13. [정답] ①

[토론과 토의]

토의의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토의의 방식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럼은 '공공의 문제', '적극적인 청중' 등을, 심포지엄은 '학술적', '다수의 전문가' 등을, 패널은 '이견 조정', '배심원' 등을, 원탁 토의는 '소규모', '비공식적' 등을 키워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전문가가 소수로 참여해 강의나 연설을 하지 않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포럼' 방식입니다.

- ① [O] 포럼에서는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② [X] 패널에서는 배심원이 참여해야 하며 사회자의 비중이 매우 큼니다.
- ③ [X] 원탁 토의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 ④ [X] 심포지엄에서는 학술적인 주제를 전문가나 권위자가 강연식으로 발표한 후 청중이 질의응답합니다.

14. [정답] ②

[수사법]

밑줄 친 부분은 '근심'을 '산'에, '한'을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 ① [X] 비유법이 사용되었지만 '강아지 같은'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면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여 'A는 B이다' 형식으로 쓰였으므로 은유법에 해당합니다.
- ③ [X] 목숨을 빼앗은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살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이 안되게, 이치에 어긋나게 표현한 역설법에 해당합니다.
④ [X] 느낌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탄법에 해당합니다.

♥ [기특+] - 수사법

- (1)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 (2) 활유법: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 (3) 직유법: 비슷한 성질을 지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이’, ‘~처럼’, ‘~인 듯’, ‘~인 양’, ‘~하는 모양으로’ 등의 표현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 (4)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동일성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물의 본 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A는 B이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 (5) 대유법: 사물의 한 부분이나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낸다.
 - ① 제유법: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환유법: 인접성을 원리로 하여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로 바로 연결되는 비유법으로, 표현하려는 대상과 연관되는 속성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
- (6) 점층법: 표현 대상에 대한 어구를 나열하면서 점점 그 뜻을 강화시켜 크게, 강하게 확대하는 표현법이다.
- (7) 점강법: 표현 대상에 대한 어구를 나열해 가면서 글을 점점 약하게, 낮게, 알게 축소하는 표현법으로, 점층법의 반대이다.
- (8) 역설법: 표면적으로는 논리적 모순을 지니지만, 심층적으로는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으로, 표면적 모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읽어내는 데 유의해야 한다.
- (9) 반어법: 표현하려는 본뜻과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이다.
- (10) 영탄법: 감탄사 따위를 사용하여 놀라움, 슬픔, 기쁨 등과 같은 격찬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법이다. 주로 ‘~구나’, ‘~여’ 등으로 표현된다.
- (11) 설의법: 반문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 (12) 도치법: 정상적인 글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수사법이다.